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조 학 순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의료환경은 급변하는 의료진달체제와 대상자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종합적인 결정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전문화된 간호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Maynard, 1996). 간호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간호전문직의 요구에 따르는 질 높은 교육에 의한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추측하기보다는 사실, 증거에 기초한 판단을 할 의향을 가진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로서 간호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질적인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Rubinfeld & Scheffer, 1999). 교육의 초점이 교육의 내용에서 교육의 결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돕는 것에 주요 강조점을 두고 있다(Rane-Szostak & Robertson, 1996). 실제로 1992년 이후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은 비판적 사고를 간호교육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간호대학 졸업생이 대학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치료적 간호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간호대학의 승인기준에 포함시킨바 있다. 간호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간호와

관련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간호교육향상을 위한 비판적사고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Facione & Facione, 1994; Girot, 1995; Maynard, 1996).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도 비판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박래준, 1996; 안재경, 1997; 이명아, 1993; 조수향, 1994), 간호계에서도 1996년 신경림에 의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연구(고금자, 2003; 윤진, 2004; 이현주, 2002; 정덕유, 2001; 조계화, 2002; 황선영, 2003; 황지원, 1998)가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사가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간호하고 예술과 과학으로 인식되는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생각하기, 적용하기, 분석, 종합, 평가하기 등의 비판적 사고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요구됨으로써 사고하는 능력이 간호과학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대두되고 있다(Jones & Brown, 1991; Schank, 1990). 간호교육의 특성상 학교교육의 결과가 간호실무와 관련되는 것에 비추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황지원, 1998)가 제시된 바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으나 하부영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고금자, 2003; Barbara & Vivian & Sue & Jana & Cherylet., 199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주요어 :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 본 연구는 2005년도 진주보건대학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교수(교신저자 E-mail: hans0208@netian.com)

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나타내고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Barrett & Myrick, 1998)으로 학생들은 미래의 전문적 간호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접하게 되며, 간호사가 간호하는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다. 또한 간호실무가 질병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간호학생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주입받은 지식과 정보만으로 대상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Adams, Stover & Whitlow, 1999).

간호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간호교육 상황은 사고보다는 정보제공이나 단순 암기식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은 임상에 적응할 수 있는 간호사로 교육시키기보다는 지식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복잡한 간호 상황에 신중히 대처해나가기 위하여,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실무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간호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성향, 태도, 일련의 학습전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접근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Chenoweth, 1998). 임상수행능력은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기술로서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론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기술로서 의사결정 및 비판적 사고가 그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Benner, 1984). 이와 같이 간호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간호교육자에게는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정의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와 간호실무와 관련된 연구로는 문제해결능력(Scoloveno, 1981), 의사결정(Brooks & Shepherd, 1990), 임상수행능력(Maynard, 199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과의 명확한 관련성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로는 전문직태도(김혜숙, 2001), 임상실습 스트레스(최현영, 1992)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의료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에서 비판적 사고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간호교육의 특성상 간호실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때 간호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에서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비교 측정하여, 이를 통해서 간호교육 과정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간호교육과 간호실무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간호교육에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간호교육과 간호실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용어의 정의

• **비판적 사고성향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있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자기조절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적인 성향, 습관을 의미한다(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본 연구에서는 윤 진(2004)이 개발한 27문항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임상수행능력**
간호학생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다양한 임상장소에 따라 어떻게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가를 의미한다(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하고 최현영(1992)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한 44문항의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대상자군 표집 시 임의표출을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대상자의 자가보고 방식으로 측정 하였으므로 대상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로 3차 교육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에서 18주 동안 실습한 학생 151 명을 임의 표출하여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윤 진(2004)이 개발한 27문항의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로 7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는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14$ 으로 나타났다

-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에서는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하고 최현영(1992)이 수정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근거로 간호학 교수 2인과 임상실습 전담교수 1인,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간호사 1인 에게 내용 타당도를 의뢰하여 본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2문항을 삭제하여 총 44문항을 본 연구의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로 최종 분석하였다. 하위영역으로는 간호과정 10문항, 간호기술 10문항, 교육/협력관계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 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잘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현영(1992) 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9539$ 였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alpha = 0.950$ 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미응답이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제 외한 나머지 151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 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였 으며, Duncan 다중비교를 하였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과 3학년 학생으로 남학생 2명, 여 학생 149명으로 총 151명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업률을 고려 한 경우가 56.3%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부모님, 교사, 선배의 권유가 39%,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17.9%에 불과하였다. 현재 간호학 전공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으며,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11.9%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단지 5.3% 만이 불만족한 것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16.6% 만이 불만족스러운 경향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
간호과 입학동기	취업률 고려	85	56.3
	부모, 교사, 선배권유	39	25.8
	적성 고려	27	17.9
전공 적응 정도	잘 적응한다	37	24.5
	대체로 적응한다	96	63.6
	적응하지 못하다	18	11.9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	76	50.3
	보통	67	44.4
	불만족	8	5.3
실습에 대한 만족도	만족	45	29.8
	보통 불만족	81 25	53.6 16.6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와 임상수행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평점 3.5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정도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하위요인별 평점을 비교해 보면 지적열정 및 호기심 3.34, 신중성 3.32, 자신감 3.51, 체계성 3.07, 지적공정성 3.78, 건전한 회의성 3.60, 객관성 3.87으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으로는 객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적 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등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성향으로는 체계성이었다<표 2>.

임상수행능력은 평균평점이 3.3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간호과정 3.27, 간호기술 3.35, 교육/협력관계 3.41, 대인관계/의사소통 3.37, 전문직발전 3.45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으로는 전문직발전과 관련된 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것으로는 간호과정이었다<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F=5.563, p=.005)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별 Duncan test로 집단간 비교 결과는 지적열정 및 호기심의 경우는 주변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에(p<.05), 비교적 전공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p<.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5),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p<.01) 더욱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함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5), 자신감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5), 체계성은 비교적 주변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에(p<.05), 지적 공정성은 적성을 고려해서 입학한 경우에(p<.05),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1)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

<표 2> 대상자의 영역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변수	평균평점	표준편차
비판적 사고성향	3.50	.31
지적열정, 호기심	3.34	.52
신중성	3.32	.61
자신감	3.51	.51
체계성	3.07	.59
지적공정성	3.78	.42
건전한 회의성	3.60	.46
객관성	3.87	.47
임상수행능력	3.37	.44
간호과정	3.27	.40
간호기술	3.35	.54
교육/협력관계	3.41	.54
대인관계/의사소통	3.37	.59
전문직발전	3.45	.5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특성	구분	간호과정		F or t		간호기술		F or t		교육/협력관계		F or t		대인관계/의사소통		F or t		전문직발전		F or t		전체		F or t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M	SD	(p)				
입학 동기	취업률고려	3.21	.44	1.816	3.29	.57	1.159	3.37	.62	.396	3.31	.64	1.022	3.42	.61	.405	3.32	.49	1.199							
	주변권유	3.33	.34	(.166)	3.43	.52	(.316)	3.46	.41	(.674)	3.46	.53	(.362)	3.50	.49	(.668)	3.44	.38	(.305)							
	적성 고려	3.34	.29		3.42	.49		3.42	.39		3.43	.50		3.49	.39		3.42	.30								
	잘 적응	3.39	.39	2.973	3.50	.58	2.492	3.54	.48	2.059	3.59	.56	4.853**	3.71	.52	3.363**	3.55	.41	5.202**							
전공 적응도	대체로 적응	3.24	.38		3.32	.53		3.39	.55		3.34	.57		3.38	.52		3.33	.42								
	적응 못함	3.14	.47		3.18	.49		3.24	.55		3.10	.63		3.28	.58		3.19	.45								
전공 만족도	만족	3.30	.39	.720	3.45	.52	3.094*	3.45	.50	.599	3.43	.53	1.687	3.55	.52	2.674	3.44	.39	2.135							
	보통	3.23	.40	(.489)	3.27	.54	(.048)	3.35	.57	(.551)	3.33	.66	(.551)	3.36	.56	(.072)	3.31	.47	(.122)							
	불만족	3.24	.50		3.08	.67		3.42	.59		3.06	.42		3.29	.61		3.22	.49								
실습 만족도	만족	3.34	.35	1.087	3.51	.52	3.132*	3.49	.46	.875	3.55	.48	3.417*	3.61	.50	3.320*	3.50	.36	3.172*							
	보통	3.23	.42		3.30	.52		3.36	.58		3.31	.63		3.41	.54		3.32	.45								
실습 만족도	보통	3.23	.42		3.30	.52		3.36	.58		3.31	.63		3.41	.54		3.32	.45								
	불만족	3.24	.40		3.22	.60		3.40	.53		3.22	.59		3.30	.59		3.28	.47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b, α=.05)

* p<.05 ** p<.01 *** p<.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

특성 구분	지적열정 호기심		F or t (p)		신중성		F or t (p)		자신감		F or t (p)		체계성		F or t (p)		지적 공정성		F or t (p)		건설한 회의성		F or t (p)		객관성		F or t (p)		전체		F or t (p)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입학 동기	취업불고려	3.24	.54	4.078*	3.30	.66	.167	3.48	.54	3.35	2.96	.55	3.667*	3.71	.39	3.835*	3.56	.43	.707	3.86	.45	.072	3.45	.29	3.039													
		a					(.846)						(.028)	a		(.024)			(.495)																			
	주변권유	3.51	.48		3.35	.55		3.56	.49		3.26	.62		3.82	.43		3.66	.48		3.90	.50		3.58	.33														
작성고려		b								b			ab																									
	작성고려	3.40	.43		3.37	.56		3.51	.46		3.10	.60		3.95	.43		3.62	.49		3.88	.52		3.55	.31														
		ab								ab			b																									
잘 적응		3.55	.50	5.334**	3.40	.61	3.026	3.60	.54	2.033	3.13	.59	1.027	3.90	.45	2.326	3.53	.50	1.202	3.88	.51	.277	3.57	.34	2.931													
		b		(.006)			(.052)			(.135)			(.361)			(.101)			(.304)			(.758)			(.056)													
	대체로적응	3.30	.50		3.36	.59		3.51	.51		3.08	.56		3.76	.39		3.59	.43		3.89	.46		3.50	.30														
적응못함		a																																				
	적응못함	3.11	.54		3.00	.67		3.31	.47		2.89	.71		3.67	.45		3.74	.48		3.80	.46		3.36	.24														
		a																																				
만족		3.43	.49	4.327*	3.42	.61	4.389*	3.61	.52	3.961*	3.11	.52	.821	3.90	.38	7.896**	3.59	.46	.309	3.90	.48	.350	3.56	.31	5.563**													
		b		(.015)		b	(.014)	b		(.021)			(.442)	b		(.001)			(.735)			(.705)	b		(.005)													
	보통	3.27	.52		3.28	.57		3.44	.49		3.05	.63		3.69	.41		3.59	.45		3.85	.46		3.45	.29														
만족도		b						ab					b									b																
	불만족	2.95	.57		2.78	.71		3.16	.48		2.83	.82		3.44	.44		3.72	.49		3.79	.53		3.24	.29														
		a						a					a									a																
실습	만족	3.54	.51	5.245**	3.39	.63	.665	3.60	.42	1.027	3.12	.48	.266	3.92	.42	3.498	3.62	.46	.603	3.93	.40	.647	3.59	.28	2.849													
		b		(.006)			(.516)			(.361)			(.767)			(.033)			(.549)			(.525)			(.061)													
	보통	3.26	.48		3.27	.54		3.47	.52		3.05	.61		3.73	.40		3.56	.46		3.84	.49		3.45	.30														
만족도		a																																				
	불만족	3.22	.54		3.37	.79		3.48	.62		3.03	.71		3.70	.41		3.67	.44		3.89	.54		3.48	.36														
		a																																				

a, b : Duncan's Multiple Comparison (a<b, α=.05)

* p<.05 ** p<.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전한 회의성과 객관성은 모든 변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전공적응도($p<.01$) 및 실습 만족도($p<.05$)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요인별 Duncan test로 집단간 비교결과는 간호기술은 전공만족도($p<.05$), 실습만족도($p<.05$)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의사소통은 전공에 대해서 잘 적응할수록($p<.01$),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p<.05$), 전문직발전은 전공에 대해서 잘 적응할수록($p<.01$),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p<.05$) 더욱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경향이였다. 또한 교육/협력관계은 모든 변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대해서는 모든 변인이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따라서는 그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을 Person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21, p<.000$).

<표 5>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	
임상수행능력	.421***	-

* $p<.05$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 3.50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평균은 객관성 3.87, 지적공정성 3.78, 건전한 회의성 3.60, 자신감 3.51, 지적열정, 호기심 3.34, 신중성 3.32, 체계성 3.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객관성, 지적 공정성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윤진(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금자(2003)의 연구에서 객관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외에도 본 연구와 측정도구는 다르나 체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양승애, 정덕유(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는 간호학생의 학습방법이 조직적이고 탐구를 통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으로 체계성의 성향이 부족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CTDI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승애, 정덕유(2004)의 연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지원(1998)의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중 호기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호사의 특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체계에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간호지식의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객관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간호학생의 특성상 풍부한 경험이 부족한 대신 사고의 유연함(flexibility)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수의 교수방법과 학습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신경림, 1996, Miller, 1992). 비판적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방형태의 주입식 강의보다는 문제제기식의 상호교환방법을 통한 교수방법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간호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특성별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차이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p=0.005$)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고금자(2003)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입학동기에서 하위요인에서 취업률을 고려한 경우보다는 주변의 권유와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높은 비판적 사고성향을 보인 점은 간호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호학생의 선발과정 뿐 아니라 간호학생의 지도사항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서 취업률을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보다는 주변의 권유로 입학하거나 적성을 고려한 경우 지적열정 및 호기심, 체계성, 지적 공정성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에 대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지적열정 및 호기심이 높은 것으로 전공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인 경우 지적열정 및 호기심, 신중성, 체계성, 지적 공정성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실습에 만족한 경우 지적열정 및 공정성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년간 집단간의 비교를 하여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비판적 사고성향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간호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간호교육과정의 개발과 간호교육 효과 측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결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각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지도사항에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외 간호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cione와 Facione(1992)이 개발한 CCTDI(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는 75문항으로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40-55문항

(정덕유, 2001; 황지원, 1998)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내 비판적 사고 측정을 위해 우리 문화와 언어에 맞도록 개발된 박선환(1998)의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한 고금자(2003)의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판적 사고성향 도구는 윤진(200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서 간호교육에 활용되기 위해 간호실무의 특성이 고려된 도구를 사용한 결과로서 다른 도구와 연구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점은 앞으로 국내 간호분야의 간호현실에 맞는 적용 가능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적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균 평점이 3.37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요인에서는 전문직 발전 3.45, 교육/협력관계 3.41, 대인관계/의사소통 3.37, 간호기술 3.35, 간호과정 3.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과정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 고금자(2003), 김혜숙(2001), 최현영(199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교육은 간호학생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기술, 행위를 직접 실무현장에서 훈련을 통하여 실무를 익히고, 스스로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고 진단하는 기술 및 자신의 간호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다. 이는 임상실습교육이 주로 관찰과 기술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습교육 현장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실습교육이 주로 임상에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노력보다는 관찰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찰과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한 실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간호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양진주, 박미영(2004)의 연구결과 기본간호에서 가장 높은 수행능력을 보고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간호기술이 낮은 순위를 나타낸 것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실습초기에는 기본간호에 중점을 둔 실습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학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실습교육으로 각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보이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나 보인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의 샘플 수가 적은 점과 간호학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현 실습의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간호실습교육에서 기본간호술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과 학년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부요인에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문직발전, 교육/협력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점은 전문직발전, 간호기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고금자(2003)의 연구결과와 간호기술, 전문직 발전의 순으로 나타난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2000)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전문직 발전에 높은 점수가 나타난 점은 일치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지원(1998)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발전에 관한 업무에서 간호수행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간호학생 모두 전문직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간호에 있어서 전문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도의 증가 및 간호전문직의 발전이 기대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임상수행능력과 전공 적응도와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배려와 실습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21, p<.000$). 고금자(2003)와 Babara 등(1999)의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와 다르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황지원(1998)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구의 샘플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과 간호학생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이 제한된 현 실습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외에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생은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사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 간호실무가 질병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간호학생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주입받은 지식과 정보만으로 대상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간호교육의 특성상 학교교육의 결과가 간호실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임상에서 의사결정에 특별히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인지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어 할 것이다(Facione, Facione, & Giancarlo, 1996). 간호교육에서도 비판적 사고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간호와 관련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고 간호전문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 있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간호현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과 임상실습교

육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과 발달에 적합한 전략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간호교육과 간호실무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J시에 소재 한 일개 간호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총 18주의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윤진(2004)이 개발한 27문항의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와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원희 등(1990)이 개발하고 최현영(1992)이 수정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근거로 본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2문항을 삭제하여 총 44문항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은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차이점은 t-test와 ANOVA 그리고 Duncan test로 검정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평점은 3.5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점을 비교해 보면 지적열정 및 호기심 3.34, 신중성 3.32, 자신감 3.51, 체계성 3.07, 지적공정성 3.78, 건전한 회의성 3.60, 객관성 3.87으로 나타났다.
- 임상수행능력의 평균평점은 3.37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평점을 비교해보면 간호과정 3.27, 간호기술 3.35, 교육/협력관계 3.41, 대인관계/의사소통 3.37, 전문직발전 3.45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563, p=.005$).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전공 적응도($F=5.202, p=.007$), 실습 만족도($F=3.172,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21, p<.000$).

이상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자수를 확대하여 실시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다양하고 신뢰성있는 타당한 도구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금자 (2003).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릉.
- 김혜숙 (200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6(10), 64-76.
- 박래준 (1996). *초등학교 아동의 비판적 사고력 및 사고성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선환 (1998).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학위논문, 서울.
- 신경림 (1996).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43-52.
- 안재경 (1997).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시사만화 활용방안-사회과 시사학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원.
- 양승애, 정덕유 (2004).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6(1), 156-165.
- 윤진 (2004).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 간호학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규은, 하나선, 길숙영 (2000). *간호대학생의 자기표출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3), 571-583.
- 이명아 (1993). *사회과 비판적 사고 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원희, 김조자, 유지수, 허혜경, 김경숙, 임성민 (1990).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13, 17-29.
- 정덕유 (2001). *간호대학 상급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조계화 (2002). 비판적 사고 질문지를 이용한 간호학생의 자율학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8(2), 295-303.
- 조수향 (1994). 초등학교 아동의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과 학업성적의 상호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현영 (1992).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황선영 (2003). 문제중심학습(PBL)이 간호학생의 학업성취도, 비판적사고력, 학습태도 및 동기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광주.
- 황지원 (1998).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간호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Adams, M. H., Stover, L. M., & Whitlow, J. E. (1999). A Longitudinal Evaluation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Abiliti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3), 139-141.
- Barbara, A. M., Vivian, E., Sue, B., & Jana, D., & Cheryl, L. (1999).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Competence : A study of their relationship in BSN Seni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8(3).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Excellence and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Menlo Park, CA: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Chenoweth, L. (1998). Facilitating the process of critical thinking for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18(40), 281-92.
- Facione, P. A., Facione, N. C. (1992). *CCTDI*. Millbrae, CA : California Academic Press.
- Facione, P. A., & Facione, N. C. (1994).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 Millbrae, CA; California Academic Press.
- Facione, P. A., Facione, N. C., & Sanchez, C. A.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onent clinical judgement : the development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DTI).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 Facione, P. A., Facione, N. C., & Giancarlo, C. F. (1996).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 1st. ed. Rev. California ; California Academic Press.
- Girof, E. A. (1995). Preparing the practitioner for advanced academic study : the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387-394.
- Jones, S., & Brown, L. (1991). Critical thinking : Impact o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6, 529-533.
- Maynard, C. A. (1996).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Ability to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1), 12-18.
- Miller, M. A. (1992). Outcomes evaluation: measuring critical think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417-424.
- Rane-Szostak, D., & Robertson, J. F. (1996). Issue in measuring critical thinking : meeting the challeng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5(1), 5-11.
- Rubinfeld, M. G., & Scheffer, B. K. (1999).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 an interactive approach*. Philadelphia : Lippincott.
- Schank, M. J. (1990). Wanted: Nurses with critical thinking skill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1(2), 86-89.
- Scoloveno, M. (1981). *Problem solving ability of senior nursing students in three program types*. doctoral dissertation, Ruteers University, New Jerseys.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Cho, Hak-Soon¹⁾

1) Department of Nursing, Jin Ju Health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ethod :** The sample consisted of 151 nursing students, who have ever had clinical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by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for 13 days from April 18-30, 2005.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Duncan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Programs. **Result :**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total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 the nursing students was moderately(3.50).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F=5.563$, $p=.005$). 2. The total mean score of clinical competency in the nursing students was slightly high(3.37).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adaptation with the nursing major($F=5.202$, $p=.00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3.172$, $p=.045$). 3.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was founded($r= .421$, $p<.000$). **Conclusion :** In conclusion, this study revealed tha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fluences clinical competence. Therefore, the finding of this study may provide significant basic data for nursing education and nursing practice.

Key words : Thinking, Clinical competenc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05 Jin ju Health College research gra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o, Hak-Soon

Department of Nursing, Jin Ju Health College

1142, Sangbongsu-dong, Jin Ju city, Gyeongsang Nam-Do 660-757, Korea

Tel: +82-55-740-1834 Fax: +82-55-740-1830 E-mail: hans0208@netian.com